

국내 패션 스타일에 반영된 TV 드라마 의상 분석에 관한 연구

- 2002년 이후 드라마 '겨울연가', '옥탑방 고양이', '요조숙녀'를 중심으로 -

이 지 현* · 정 은 숙**

명지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 명지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f TV Drama Clothes Analysis in Domestic Fashion Style

- Focused on 2002's TV Drama -

Ji-Hyoun Lee* · Eun-Sook Chung**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Myong-ji University**

(2005. 1. 7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V drama clothes that is reflected in domestic TV fashion style.

First of all, luxury look is one of drama cloth's signature look. It takes a imported brand wear and a high price accessories. Especially, the hero and heroine of the drama 'Fine lady' wear imported brand jacket and a accessories as earrings, shoes and bags are in fashion. Also the hero of the drama 'The room of a rooftop's cat' wear Armani shirts and Kenzo suits. Second, nowadays sportive look is one of fashion trend and young people's representative look. The drama 'The room of a rooftop's cat' has define trends when it comes to training wear. And the training wear is a big hit because of drama 'The room of a rooftop's cat' hero and heroine. Third, utility look shows a practical wear and comfortable wear. The utility look's items is shirring T-shirt, cargo pants and jeans. In addition to that drama's hero and heroine make a lots of fashion. The hero of drama 'Winter sonata' of hair style and matching muffler is in fashion. Also TV drama's fashion is a potent influence.

Key words: luxury look(럭셔리 룩), sportive look(스포티브 룩), utility look(유틸리티 룩)

I. 서론

복식이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의 한 단면을 표출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서 인간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과 관계가 있다.¹⁾ 일반적으로 TV 의상은 TV 매카니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서 분장을 하고 의상, 액세서리를 선택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시청자들이 채널을 고정시키도록 해야만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연자 본인의 취향을 배제하고 TV화면 안에서 배경세트와 잘 조화되고,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극의 내용이 요구하는 인물로 재탄생하여 사실감을 주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상인데, 이러한 TV의상은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서 출연자들의 의상 선택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 중에서도 드라마에서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무대로 하여 시청자들에게 간접 경험을 갖도록 하고 사실감을 느끼도록 제작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출연자들은 본인의 개성, 나이를 무시하고 대본이 의도하는 인물로 재탄생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의상의 표현성과 상징성은 드라마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의 특징을 표현하며, 극의 흐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복선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특히, 최근 방영되는 드라마의 경우 드라마에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직업, 지위, 성격을 패션을 통해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드라마 스토리에 맞는 의상 연출이 필수적이다. 드라마에서의 의상이란 드라마의 극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복식을 뜻하는 것으로 연기자가 착용하는 의상과 헤어 스타일, 머리장식, 신발, 분장은 드라마의 독립된 미술분야이지만 이것들은 제각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연기자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므로 의상은 이러한 관계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드라마의 의상은 화면에 투영되는 표현적 주체인 배우와 일치되어 지속적 움직임을 갖는 것으로 심미적인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드라마의 스토리를 구체적 또는

추상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드라마 의상은 시대적 배경, 극적 암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큰 수단인 것이다. 즉, 드라마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표현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드라마 '겨울 연가'의 경우 제작 전부터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이민형(배용준)의 안경, 머플러 등이 세심한 준비로 마련되었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었으며,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에서 주인공 남정은(정다빈)과 이경민(김래원)이가 입고 나온 의상은 '옥고 패션'이라 불리워지며 대유행을 거두었다. 국내에서도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Sex & The City)'는 드라마와 함께 패션 자체가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드라마에서 눈에 띄는 드라마 의상 및 패션 소품들은 국내, 외 드라마를 막론하고 베스트셀러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드라마 의상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이고, 드라마 의상을 통해 패션 트렌드의 예측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2년도 이후 제작된 국내 TV 드라마 의상과 헤어 스타일, 패션 소품을 중심으로 대중에게 반영된 국내 패션 스타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방법은 먼저 2002년도 이후 제작된 드라마들 중 닐슨미디어리서치²⁾에서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 주간 시청률 20위 안에서 드라마 부분 10위 안에 속하며, 대중들의 패션에 영향을 많이 준 3편의 드라마 '겨울연가', '옥탑방 고양이', '요조숙녀'를 선정한다. 그리고 3편의 드라마별 줄거리와 드라마 등장인물들에 따른 패션 스타일을 살펴본 후 국내 패션 스타일에 반영된 룩을 분석한다.

TV 드라마 의상 분석을 위해서는 TV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 및 매스컴(KBS, MBC, SBS)의 보도 자료, 보다 신속한 패션정보를 위한 인터넷 자료와 신문 등을 참고로 국내 패션 스타일에 반영된 TV 드라마 패션을 살펴보았다.

II. 드라마 의상 분석

1. KBS 드라마 겨울연가(방송시기: 2002년 1월 ~2002년 3월)

1) 드라마 제작 및 줄거리

드라마 '겨울연가'는 단순한 스토리 중심의 드라마를 탈피하는 영상시와 같은 드라마를 지향하였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주는 풍부한 영상 이미지를 서정성 짙은 음악과 함께 슬픈 멜로드라마 위에 채색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심미적 영상 스타일을 구축하였다. 줄거리는 정유진(최지우)와 강준상(배용준)은 고등학교 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배용준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고 새로운 여자친구 최지우의 친구인 오채린(박솔미)를 사귀고 있으며, 몇 년 후 최지우는 건축가 디자이너로 배용준은 이민형이라는 건설회사 대표로 만나게 된다. 배용준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최지우를 좋아하게 되고 최지우를 좋아하는 김상혁(박용하), 배용준의 여자친구인 박솔미, 이 넷의 사각갈등이 일어나며, 결국 배용준은 기억을 되찾고 최지우와 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는 러브 스토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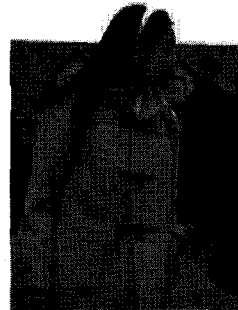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일본, 중국으로 수출되어 큰 인기를 누렸으며, 국내에서는 패션, 배경음악, 촬영장소까지 큰 인기를 불러일으켰다. TV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인 남이섬이나 춘천 등지는 그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1순위로 떠올랐으며, 드라마 배경음악은 휴대전화 다운로드 인기곡이 되었고, 최지우, 배용준 패션 따라하기도 유행이었다. 특히 주인공인 최지우의 단발 헤어스타일(사진 2), 배용준의 바람머리(사진 3)와 배용준의 머플러는 많은 젊은이들의 모방 대상이 되었으며, 최지우가 극중에 선물 받은 목걸이는 '최지우 목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겨울연가 인터넷 게시판으로는 두 주인공이 착용하는 의상,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냐는 질문이 쇄도했다. 겨울연가가 6회분이 방송되었을 때 20%가 넘는 시청률을 보였으며, 또 인터넷 홈페이지 1일 접속 건수가 무려 1000만 건을 돌파하여 네

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대변하였다. '겨울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용준과 최지우의 사진을 모니터 크기별로 갖춰 놓고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게 했었으며, '겨울연가'의 이름을 빌린 카페, 상점이 등장하였다.³⁾

2) 드라마 등장인물별 패션 스타일

(1) 정유진 역(최지우)

고등학교 때의 유진은 밝고 명랑한 성격에 정의의 로움을 갖춘 여학생이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려운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 어린 여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 10년 후 유진은 가슴 깊이 묻어둔 준상을 만나게 되지만,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하여 사랑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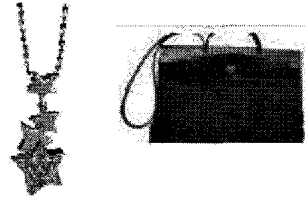
〈사진 1〉 발랄한 여고생의 최지우

드라마 초반 최지우는 긴 생머리에 흰 머리띠, 옐로우 더플코트를 입은 말괄량이 여고생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발랄한 여고생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보통 여고생들처럼 머리띠를 하거나 하나로 질끈 매는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 또 의상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옐로우, 핑크 등 어려보이는 파스텔 컬러와 펜츠, 점퍼 등으로 평범한 학생 스타일을 선택했다(사진 1). 하지만 10년 후의 모습을 위해서는 또 다른 파격적인 변신이 필요했는데, 최지우는 드라마 속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직업과 어울리도록 데뷔 8년간 길러왔던 긴 머리를 잘랐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직업만큼 의상 컨셉도 유틸리티로 잡



〈사진 2〉 성숙미를 강조한
화이트 셔츠에 니트를 매치시킨
코디네이트와 단발머리

왔다〈사진 18〉. 의상 컬러도 한 톤 다운된 느낌으로 선택해 성숙미를 강조했다. 성숙미를 강조시킨 드라마 의상들은 세련됨으로 멋스럽게 소화되어 여고생 때와는 다른 이미지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직업인 최지우는 빌딩과 스키장 등 공사현장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팬츠를 주로 입는다. 약간 헐렁한 데님 팬츠나 수트 블랙 팬츠를 자주 입고, 롱코트와 함께 매치해 한층 성숙된 느낌으로 팬츠를 소화해냈다. 또한 깨끗한 화이트 셔츠와 니트를 매치시킨 연출은 단발머리와 아주 잘 어울려 하나의 아이템으로 매력적인 연출을 만들어 화이트 셔츠와 블랙, 바이올렛, 블루 등의 니트를 매치시키는 스타일을 선풍적으로 유행시켰다. 최지우의 헤어스타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층을 낸 단발로 개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스타일인데도 세련된 극중 최지우의 이미지 때문에 많은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사진 2〉. 드라마 방영 당시 여대 앞 미용실에서는 ‘최지우 헤어스타일’로 해 달라는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최지우가 매고 다니는 블랙 서류가방은 ‘에르메스(Hermes)’제품으로, 디자이너로서 그녀의 세련되고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블랙 컬러는 그녀의 차분한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사진 3〉. 또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별들은 자리를 옮기지만 움직이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 있어 길을 잃었을 때 길라잡이가 된다는 별자리를 상징하는 폴라리스 목걸이는 드라마에서 ‘당신에게 폴라리스 같은 사람이 되어주겠다’는 사랑 고



〈사진 3〉 최지우 목걸이라 불리우는
폴라리스 목걸이와 가방

백과 함께 민형이 유진에게 선물해서 유행을 하게 된 목걸이이다. 드라마 방영 당시 목걸이에 대한 문의가 겨울연가 사이트는 물론 각종 인터넷 게시판, 카페 등에 쇄도했다〈사진 3〉. 이 목걸이를 험찬한 ‘골든듀’는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선물 주는 장면이 방영된 후 매출이 눈에 띄게 올라 몇몇 상품이 조기에 품절되었었다고 한다.⁴⁾ ‘겨울에는 차가워 보인다’는 이유로 은색목걸이를 기피했던 패션리더들은 ‘최지우 목걸이’ 이후 ‘순수하고 깨끗해 보인다’며 은 목걸이를 걸기 시작했다.

(2) 강준상 역(배용준)

스토리상 배용준은 일 인 이역을 맡게 되는데, 어릴 적 그는 가름하고 창백한 얼굴에 차갑고 우수에 찬 눈빛의 소유자이다. 아버지에 관한 비밀을 지녔으며, 유진과 사랑하는 사이이나 교통사고를 당한다. 10년 후 건설회사 대표로서 그는 밝은 성격의 인물로 재등장하고, 스키장 리노베이션을 두고 유진과 다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배용준은 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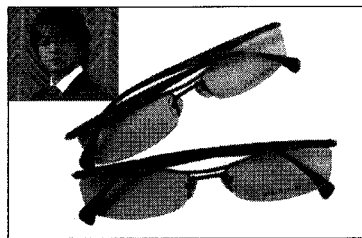
〈사진 4〉 깎배기 머플러로
포인트를 준 배용준
스타일과 트랜치 코트

학교 때의 모습을 배제하면 건축사무소의 이사로서, 밝은 성격의 인물이다. 그런 그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한 의상으로 하의는 청바지와 면바지로 편안하게, 상의는 터틀넥 스웨터 위에 고급스러운 느낌의 하프코트나 쓰리버튼의 가죽 재킷을 코디해 부드러운 면을 살렸으며, 상의 중 트랜치 코트는 브랜드 씨피컴퍼니(C.P Company)의 협찬을 받았다.<사진 4> 배용준 코디의 포인트는 목까지 올라오는 터틀넥 스웨터로 소년처럼 순수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준



<사진 5> 목까지 올라오는 터틀넥 스웨터와 바람머리 헤어스타일

다. 또한 터틀넥 스웨터를 반으로 접어 입지 않는 것도 눈길을 끄는 요소로 목에 타이트하게 붙여 입는 것이 아니라 턱까지 감쌀 정도로 풍성하고 자연스럽게 연출한다<사진 5>. 여유있게 넉넉한 의상과 모노톤을 배제한 따뜻한 컬러로 컨셉을 맞춘 것도 특징이다. 배용준이 극중에서 입은 의상은 중저가 브랜드로 코디네이터 홍은경씨는 '밝은 색상으로 의상을 통일하고 머플러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배용준 스타일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한다. 체크, 단색 등 두 개의 머플러를 꼬아 두르는 배용준식 '파배기 머플러'는 2002년 3월 따뜻해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머플러 가게를 봄비계 만들만큼 인기가 있었다. 머플러는 상의와 비슷한 계열의 컬러로 통일감을 주거나 상반되는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포인트이다. 또 비슷한 계열의 머플러 2개를 파서 만든 것은 따뜻해 보이면서도 감각적인 느낌을 준다. 발끝까지 색상을 통일하고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배용준 따라하기의 기본이 되었다. 배용준은 민형으로 등장하면서 준상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살짝 빠진 듯한 머리에 밝은 오렌지 컬러로 블리치를 넣어 염색한 바람머리 스타일을 선보였다<사진 5>.



<사진 6> 배용준의 안경

이후, 바람머리는 가수들 사이에서도 급속히 번져서, 신승훈, 제이워크, 포지션 등이 바람머리를 했으며, 지금까지도 연예인은 물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이 되었다. 또한 배용준이 일인 이역을 하며 준상에서 민형으로 탈바꿈하는데 유용하게 쓰인 소품이 바로 안경인데, 이 안경은 폴 스미스(Poul Smith) 제품으로 안경의 테가 윗부분에만 있어 일반 안경에 비해 훨씬 세련되고 깔끔하게 보이게 한다. 이 역시 대중들에게 색다른 안경테의 유행을 선도하였다<사진 6>.

2. MBC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방송 시기: 2003년 6월~2003년 7월)

1) 드라마 제작 및 줄거리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는 90년대와는 다른 경향의 드라마 소재를 선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동거문화이다. 90년대까지 동거는 은폐적이고 일탈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거나 결혼에 부모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커플들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려졌었지만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에서는 그러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동거를 자기자기하고 예쁘게 포장하여 현대 젊은이들의 사랑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2000년대의 젊은이들 모습을 개성 있게 표현하였다. TV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의 원작은 인터넷 소설로 인터넷 사이트 '마이클럽'에서 연재된 큰 인기를 누리다 동명 소설로 재구성된 것인데, 실제로 원작자 김유리 작가가 남편과 4년 동안 동거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연재한 것이다.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의 인기는 곳곳에서 화제를 몰고 왔는데, 혼전 동거가 TV 토론 프로그램의

주제로 선정돼 열띤 토론의 장이 벌어졌고, 회원수가 3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터넷 동거 사이트가 유행했다. 드라마로 판단력이 흐린 청소년들에게 동거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반면, 드라마 방영 이후 인기가 없었던 '옥탑방'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으로 꼽힌다. 이 드라마는 김래원, 정다빈이라는 두 젊은 연기자를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았으며, 두 연기가 입은 트레이닝 패션이 유행하는가 하면 이들은 네티즌이 뽑은 최고의 커플로 선정되기도 했다.⁵⁾ 새로운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그들이 찾아낸 새로운 행복의 방법이라는 기획의도로 신세대 동거남녀의 귀여운 로맨스를 경쾌하게 표현한 이 드라마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어 드라마의 인기를 한층 더해 드라마에서 연기자들의 의상 또한 큰 이슈를 몰고 왔다. 두 주인공 남정은과 이경민이 입고 나온 의상들은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 유행이 되었는데,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멋을 나타내는 의상들이 인기를 얻었다. 대표적인 유행 아이템으로는 카고 팬츠, 셔링 셔츠, 트레이닝 팬츠, 민소매 티셔츠 등이 있다.

2) 드라마 등장인물별 패션 스타일

(1) 남정은 역(정다빈)

순진하고 순수한 반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남정은은 소박한 소시민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 평범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라마에서



〈사진 7〉 쇼트 벙 헤어스타일과 목둘레가 깊이 파인 셔츠

트레이닝복을 주로 입고 나오는데, 색의 조화와 팬츠 옆의 줄무늬의 트레이닝복으로 소박하면서도 멋스러움이 잘 강조하고 있다〈표 1〉. 트레이닝 룩은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상징하며 동시에 재미와 독특함을 표현하면서 스포티한 이미지를 완성시킨다. 또한 정은이 패션의 기본 스타일은 카고 팬츠나 짙어진진 팬츠에 목둘레가 깊이 파인 디자인의 헐렁한 셔츠를 코디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것이며, 활동성을 강조하는 스니커즈를 신고 커다란 크로스 백을 코디한다〈사진 7〉. 또는 옆선에 줄무늬가 있는 트레이닝 바지에 짧고 타이트한 원색 티셔츠를 코디한 후 조끼를 매치하거나 민소매 티셔츠와 진 팬츠를 코디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 닮아있는 캐릭터 정은의 패션 스타일은 활동적이면서 편안한 유틸리티 스타일이다.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를 통해 외주머니 장식과 셔링은 2003년 여름에 가장 인기를 끄는 디테일 장식이 되었다. 남정은의 헤어스타일은 벙 스타일⁶⁾로 귀엽고 소탈한 캐릭터를 위해 기존의 생머리에서 벗어나 앞머리를 짧게 자르고 파마를 했는데, 많은 여성들이 이 헤어스타일을 모방했다〈사진 7〉. 이번 드라마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트레이닝복 외에 가방이다. '정다빈 가방'이라고 불리며 인기를 모으는 이 가방은 브랜드 폭스(C.O.A.X)제품이며, 크로스 백 스타일로 가방 끈에 세 가지 색이 들어가 매우 활동적으로 보인다〈표 1〉.

(2) 이경민 역(김래원)

김래원이 드라마 속에서 선보이는 의상은 트레이닝복부터 아르마니 스타일의 수입 브랜드까지 다양하다. 집에서 입은 일상복은 트레이닝 룩 스타일을 연출하며 외출복으로는 수입 브랜드를 지향하는 대학생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일을 연출함으로써 새로운 패션리더의 모습을 제시했다. 이경민은 옆선이 있는 트레이닝 팬츠에 잘라낸 듯한 민소매 티셔츠나 밑단이 돌돌 말리는 티셔츠, 손으로 그린 듯한 프린트 장식 티셔츠〈사진 8〉 등 독특한 상의의 매치로 멋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는데, 김래원 패션의 포인트가 바로 티셔츠를 뒤집어 입거나 목둘레와

팔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는 것이다<표 1>. 김래원의 스타일리스트 황선희씨는 '드라마에서 브랜드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한 방법인데 특이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 덕분에 호응이 좋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녀는 극중 법대생 이면서도



<사진 8> 핸드 크래프트 티셔츠



<사진 9> 수입 브랜드 아르마니 티셔츠

노름빛에 쫓기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부잣집 아들이라는 캐릭터를 살려 자유로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가미해 '준 명품족'을 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라마에 협찬한 수입 브랜드들은 아르마니(Armani)와 겐조(Kenzo) 수트, 캘빈클라인(Calvin Klein) 셔츠, 아르마니 티셔츠 등이다. 특히 아르마니 셔츠는 공공연히 브랜드와 가격을 노출하여 수입 브랜드 열기를 부추긴다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사진 9>.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아르마니(Armani), 주벨



<사진 10> 브랜드 콜하스의 티셔츠와 주사위 모양의 목걸이

렌, 콜하스 등에는 드라마 속에서와 똑같은 의상과 목걸이에 관한 문의 전화가 쇄도했으며, 특히, 브랜드 콜하스는 드라마 방송 후 매출이 30%정도 증가했다. 콜하스의 한 관계자는 김래원 패션신드롬을 반영 '전국 각 매장에 김래원이 입었던 의상만 따로

모아 판매하는 '김래원 테마존'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 10>. 김래원 패션의 또 다른 포인트인 다양한 액세서리는 선글라스 수입 브랜드 페라가모(Ferragamo), 버버리(Burberry), 아르마니, 막스마라(MaxMara), 불가리(Bvlgari)를 번갈아 착용하였으며, 자주 등장하는 목걸이는 구찌(Gucci) 브랜드이다. 또한 주사위 모양의 목걸이는 도박을 좋아하다 노름빛에 쫓들리게 된 드라마 속 캐릭터를 살려 주얼리 브랜드 주벨렌에서 특별 제작한 것이다<사진 10>. 여기에 신세대 감각의 샌들과 슬리퍼, 크로스 백 등을 포인트 소품으로 이용했다.

3. SBS 드라마 요조숙녀(방송 시기: 2003년 8월~2003년 10월)

1) 드라마 제작 및 줄거리

이 드라마는 IMF이후 국민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신용불량자가 350만 시대에 여자들의 결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나 돈이냐는 다소 진부적인 주제를 소재로 한 드라마이다. 극중 하민경(김희선)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떻게든 부잣집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은 스투어디스이다. 하지만 신영호(고수)를 만나게 되어 사랑과 돈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과정을 에피소드화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일본에서는 30%의 시청률을 올린 원작 '야마토 나데시코'를 리메이크 한 작품으로 특징적인 것은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패션리더로 손꼽히는 연기자 김희선의 PPL 광고로 인한 효과라 말할 수 있다. 그녀가 착용했던 액세서리와 의상은 젊은 여성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중에서도 드라마 '해바라기'에서 김희선이 착용했던 헤어 고무줄인 일명 '곱창밴드'는 젊은 여성들의 유행패션 아이템으로 떠올라 1999년 여름 액세서리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으며 추정 매출액이 40억원에 이르기기도 했다. 드라마 '안녕 내사랑'에서 착용했던 X자 머리핀도 1999년 액세서리 도매 시장에서 전 매출의 90%를 차지했다. 때문에 패션 업계는 드라마 '요조숙녀' 방송 전부터 그녀에게 의

상이며, 액세서리를 협찬하기 위해 1억원을 제시한 기업도 있다는 후문도 있다. 또한 일본의 대기업 소니(Sony)에서도 한류 열풍으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김희선을 통해 중국 시장 점유를 위해 제작 스폰서 및 협찬을 아끼지 않았다.⁷⁾

2) 드라마 등장인물별 패션 스타일

(1) 하민경 역(김희선)

주인공 '하민경'은 어촌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신분상승을 위해 도시로 떠나 스텐디스가 되어, 세상에서 돈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는 돈만을 사랑의 충분조건이라 여기는 여성이다. 극중 승무원의 직업 역시 화려한 상승을 그린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민경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과정을 그리기 위해 화려하고 고가제품의 의상을 선보인다. 재벌2세와의 사랑을 꿈꾸는 그녀의 패션 키워드는 럭셔리로 여성스런 분위기의 브랜드인 샤넬(Chanel)과 모던하고 세련된 구찌(Gucci) 등의 수입 브랜드를 착용했으며, 국내 브랜드로는 디자이너 지춘희, 손정완 재킷 등의 의상을 착용했다(사진 11).



〈사진 11〉 브랜드
구찌의 여성스러운 재킷



〈사진 12〉 브랜드
샤넬 트위드 재킷

우아한 고급스러움을 지향하는 김희선의 코디네이터인 이기우씨에 따르면 국내 브랜드와 명품의 비율이 8대2 정도로 수입 브랜드보다는 국내 브랜드 위주로 입고 나오며 핸드백이나 재킷 하나만 수입 브랜드로 코디를 해 전체 스타일을 강조한다고

한다. 하지만 김희선은 이 드라마에서 루이뷔통(Louis Vuitton), 구찌(Gucci), 샤넬(Chanel),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페라가모(Ferragamo), 프라다(Prada), 홀라(Furla), 펜디(Fendi), 버버리(Burberry), 쉐비농(Chaevignon) 등 많은 수입품업체로부터 협찬을 받고 있다.

김희선의 전체적인 스타일은 아주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기본 스커트 정장이나 플레어 스커트, 원피스 같이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코디를 선보이고 있다. 김희선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오브제 스타일의 의상도 볼 수 있는데 이는 협찬상품일 가능성이 커서 극중 인물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극중의 여성스러움을 극대화시키는 스타일로 브랜드 오브제는 잘 매치가 된다. 디자이너 손정완이 디자인한 리본 벨티드 재킷과 주름 플레어 스커트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품이다. 또한 그 중에서 김희선이 입고 나온 샤넬 트위드 재킷도 7부에서 9부까지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로 유행하고 있다(사진 11). 구찌 재킷은 몸에 달라붙는 슬림형으로 허리부분이 들어가 여성의 바디라인을 잘 살리고 날씬해 보이는 실루엣으로 버클 장식에 솔칼라로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이다(사진 12). 또한 드라마 스토리상 미팅의 상대에 따라 의상도 많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미팅상대가 의사일 경우 의사들에게 친숙한 화이트 계열의 의상으로 코디하고 혐오감이 드는 붉은 계열의 의상은 피하는 의상연출을 보여준다.

또한 김희선이 들고 나왔던 머리색이 온도에 따라 변하는 인형 핸드폰 줄도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다. 극중 김희선은 매 회 화려한 패션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은 '요조숙녀' 홈페이지와 각종 연예게시판에 그녀가 극중에서 착용한 옷과 액세서리, 가방 등의 제품명과 구입처를 묻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소품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백금과 크리스탈로 장식된 브랜드 제이 에스티나(J Estina)의 왕관 모양의 귀고리와 여우 꼬리가 달린 가방이다(표 1). 그리고 발레 슈즈를 연상시키는 발목에 리본이 달린 구두도 귀고리와 가방 못 지 않은 화제를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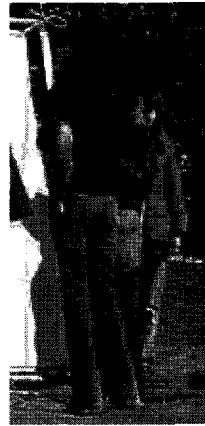
오고 있다. 이것은 이태리 브랜드 홀라(Furla)의 제품으로 가는 끈을 발목에 묶어 발레리나 스타일로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으며, 신발의 밑창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어 편안하고 실용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사진 13>. 극중 김희선을 사랑스럽게 보이게 했던 핑크색 하트 모양의 핸드백은 브랜드 마틴 시봉



<사진 13> 발목 묶는 신발

(Martine Sitbon)제품이며, 독특한 디자인과 절개라인으로 모던함과 세련된 도회적 이미지를 준다. 김희선이 입은 진 팬츠는 프랑스 중저가 브랜드인 쉐비농 제품이고, 아랫단부분이 벨(Bell)형으로 된 부츠 컷 진 팬츠로 드라마의 김희선 마케팅 효과로 인해 전국 25개 매장에서 동일 상품 품질 현상을 보였다<사진 14>. 또한 2003년도 최고 인기 아이템인 바이커 재킷과 블루종을 센스있게 활용한 것도 김희선 패션의 특징이다. 바이커 재킷의 경우, 높고 커다란 칼라로 파워풀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했다. 아이보리 컬러의 털 소재 블루종은 발랄하면서도 럭셔리해 보이는 아이템이다. 극중 김희선은 전체적인 스타일이 여성스럽기 때문에 액세서리에도 심플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상품으로 연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상이 스커트이기 때문에 가방 사이즈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소지품 정도만 들어가는 간단한 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발 또한 여성스러운 디자인과 컬러로 연출되고 있으며, 간혹 여성스럽다 못해 공주풍이다 싶은 리본이나 프릴 장식등의 프리밍이 첨가되어 있는 스타일의 신발들도 많이 보인다.

주얼리류를 살펴보면 귀걸이의 경우 작은 보석으로 이루어진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로 연출하고 있다. 2000년대 유행인 사이즈가 큰 귀걸이 보다는 크기는 작지만 다이아몬드와 같이 비싼 보석으로 이루어진 귀걸이를 주로 착용하고 있다. 이는 극 중 물질만능주의인 '하민경'이란 인물을 잘 묘사하고 있다. 목걸이도 귀걸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펜던트로



<사진 14> 쉐비농 진팬츠

이루어진 액세서리를 많이 착용하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드라마 초반에는 양갈래로 땀은 머리였고, 약간 내린 앞머리도 도시로 떠나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변신했을 때의 효과를 내기 위한 설정이기도 하다. 어촌을 떠나 도시로 온 '하민경'이 신분상승을 위한 변신을 위해 가장 먼저 들린 곳이 헤어샵으로 전체적으로 길이는 짧게 하지 않고 끝부분만 다듬어 살짝 웨이브를 주어 훨씬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한다. 극중 역할이 스텐디드라 항상 올림머리를 하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은 다양하지 않다.

(2) 문동규 역(손창민)

동규는 세계적인 게임회사 마케팅 상무이며, 경영주의 아들이다. 게임회사 한국지사장인 아버지로 부터 경영수업을 받고 있으며, 미래의 CEO라 할 수 있다. 사업적인 면에서는 냉철하고 프로의 모습을 보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민경 앞에서는 매너있고, 암전한 남자로 변하게 된다. 이런 자신의 변화에 스스로 놀라며, 사랑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민경과 관계없는 사람 혹은 영호에게는 쌀쌀하고 오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동규는 김희선과 마찬가지로 수입 브랜드 위주의 차림이지만, 컬러에 있어 변화를 주어 젊은 경영인, 성공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살리고 있다. 즉,



〈사진 15〉 정장에 니트 상의 코디로 부드러움 연출

스트라이프 정장에 옐로우 넥타이라든지, 칼라, 꽃무늬 등으로 셔츠에 변화를 준다든지 하는 차림으로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이중적인 성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정장 안의 니트 차림은 동규가 쌀쌀하고 오만하지만 민경에게는 더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이중성을 정장과 니트라는 다소 어색한 연결로 보여주고 있다(사진 15). 돈 많고 놀기 좋아하는 여피족 이미지에 럭셔리한 요트여행에서 갓 돌아온 사람처럼 살짝 그을린 갈색 피부에 뒤로 넘긴 헤어스타일, 하얀색 재킷에 보라색 꽃무늬 셔츠 등으로 모즈 룩을 덧입혀 가장 화려하고 한껏 멋을 부린 이미지를 보여준다(표 1). 스트라이프 수트를 입어도 V존을 많이 좁혔으며, 바지와 넥타이는 폭도 좁고 길어도 약간 짧은 듯하다. 재킷은 몸에 꼭 맞게 입는 모즈룩의 형식을 따르고 영국식 정장풍의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도 광택이 있는 고급소재로 고급스러움을 보여준다.

손창민의 스타일링을 맡은 유재덕씨는 '전통과 명예를 중시하는 가문이라기 보다는 갑작스럽게 돈과 명예를 얻은 집안 출신의 남자들, 혹은 부를 과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것 같은 남자들처럼 좀 야하다싶을 정도의 과감한 스타일링을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⁸⁾

(3) 신영호 역(고수)

남자 주인공 영호는 초반 떡집을 운영할 때 입었던 유틸리티 룩(Utility Look)⁹⁾과 중반 컴퓨터 게임 회사에 취직하면서 선보이고 있는 프레피 룩(preppie,

preppy look)¹⁰⁾을 젊은이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선보이고 있다. 대중적인 아이템을 바탕으로 믹스 앤 매치시키는 유틸리티 룩은 대부분 면소재로 이뤄져 입는 사람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한 장점이 있다.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에 적절하여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영국 사립학교에서 입는 듯한 클래식한 의상을 일반화해 기본 재킷과 면바지, 스트라이프 셔츠 등으로 고급스러움과 함께 자유스러운 멋을 풍기는 프레피 룩을 선보인다. 브랜드 베이직 하우스는 고수의 이 같은 옷을 쉽게 따라하거나 응용할 수 있도록 '고수 by 베이직하우스'를 따로 만들었다.

또한 극중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호주로 유학을 간 고수는 그곳에서 우연히 떠돌이 별을 발견하고 그 별에 아스타가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별 모양의 펜던트를 가죽 끈에 매달아 액세서리로 착용한다. 말레이시아어로 '놀라움'을 뜻하는 아스타가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으로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특히 연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다. '아스타가'라고 불리는 이 펜던트가 시중에 이미테이션 제품까지 나돌 정도로 반응이 좋아 고수의 기획사는 이 펜던트를 고유 브랜드로 상품화했으며, '아스타가' 펜던트는 금, 은, 주석 제품이 있고, 브랜드주얼리어나 베이직 하우스 매장에서 판매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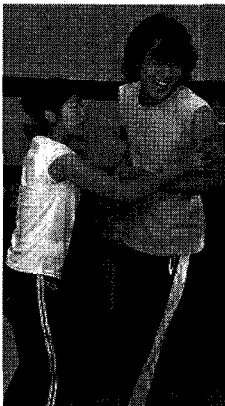
Ⅲ. 드라마 패션이 유행시킨 룩

1. 스포티브 룩(Sportive Look)

2000년대는 건강미가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인식되는 시대이며, 스포츠는 패션,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었다. 스포티브 룩은 캐주얼과 함께 시대의 젊음을 상징하고 그 젊음을 지속하고픈 20대, 30대 이후의 어덜트층과 신 소비계층으로 떠오른 10대에게 깊숙이 침투해 있다. 특히, 트레이닝복이 유행하게 되는 배경에

는 최근 휴식을 중시하며,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재 인식해 몸과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웰니스(wellness), 웰빙(wellbeing) 등으로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영향이 크다. 웰빙을 추구하는 요가나 인라인 스케이트 등 생활 스포츠의 열풍, 주5일제 근무 확산으로 인한 여가 생활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트레이닝복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트레이닝복으로 스포티브 룩을 유행시켰다. KBS 드라마 '보디가드'에서 차승원은 트레이닝복을 자주 입고 등장하였으며, 특히, MBC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의 주인공 김래원과 정다빈은 드라마 전편에 걸쳐 트레이닝복 차림이다(사진 16). '옥탑방 고양이'에서 주인공 정은(정다빈)과 경민(김래원)이가 입고 나온 의상은 '옥고 패션'이라 불리워지며 대유행을 거두었고,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동대문 패션몰 점포들이 앞 다투어 이 드라마 의상을 취급하고 있는데, 양 옆에 세로 줄무늬가 있는 트레이닝 팬츠가 대표적인 아이템이다.¹²⁾



〈사진 16〉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의 두 주인공들이 자주 입어 유행이 된 트레이닝복

드라마 의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화 '똥개(2003)'의 정우성도 초록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백수 캐릭터의 강조하였고, 가수 자두는 신곡 '김밥'을 노래하며츄리닝 패션을 선보였다. 광고에서는 전지현,

이영애, 이효리 등 톱스타들이 트레이닝 복장으로 땀을 흘리거나 요가하는 섹시한 모습을 보여준다.¹³⁾ 이 모든 것을 대변하여 나타난 것이 건강하고 섹시한 트레이닝 패션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제 옷에 대한 가치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성형수술과 무리한 다이어트로 꾸민 인위적인 외모보다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몸매가 드러나는 트레이닝 룩이 더욱 섹시해 보이게 된 것이다. 이제 예전의 편안한 차림으로 대표되었던 트레이닝복은 단순히 트레이닝의 이미지가 아닌 2000년대 패션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패션디자이너의 영감을 스포츠에 붙여 넣은 스포티브 룩의 유행은 최근 디자이너 질 샌더와 푸마의 만남과 요지 야마모토와 아디다스의 만남에서도 알 수 있으며¹⁴⁾, 프라다, 샤넬 등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트레이닝복 스타일의 스포티브 룩을 선보였다. 2000년도에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가 아디다스와 함께 패션쇼를 해 화제를 모았는데,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는 컬렉션에서 수트에 아디다스 운동화를 매치시키거나 아디다스 줄무늬를 활용한 옷들을 선보여 선풍적 관심을 모았다.

국내 디자이너들도 아디다스 룩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2년에 열린 'SFAA F/W'에서 디자이너 진태옥은 옆에 흰 줄을 내려뜨린 가죽 팬츠들을 선보였고, 장광효는 원색 컬러의 옆줄무늬 면바지로 주목받았다. 앞서 열린 서울컬렉션에서 디자이너 한송은 모든 모델들에게 아디다스 축구화와 목양말을 신겨 무대에 세우기도 했다.¹⁵⁾ 수 십 년 동안 스포티즘의 상징이 되어버린 아디다스의 삼색 로고는 그냥 세 개의 줄일 뿐이다. 그러나 트레이닝복의 바탕에 대비되면 상쾌하게 보여지는 묘한 매력을 지닌 것이 이 세 개의 줄이다. 이제 별 것 아닐 것 같던 아디다스 삼색 로고는 전 세계적으로 상쾌함과 활동성을 특성으로 한 스포티브 룩의 상징이 되었고, 스포티브 룩의 상징은 물론 디자이너들의 컨셉과 아이디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2. 럭셔리 룩(Luxury look)

2000년대는 경기가 여러모로 침체된 상황이다. 그러나 물질과 돈이 사회적 지위의 척도로 바뀌면서 내적 이미지 보다는 외향을 중시하게 되고, 패션에 민감해져 스타들의 패션을 모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물론 오래 전부터 패션에 관심을 갖고 스타들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경향도 있었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과시욕이 증가함으로써 일반 사람들도 TV 속 스타들이 입는 고가의 옷을 따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고가의 상품을 선호하면서 '명품 스타일'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수입 브랜드의 대중화가 되었다. 고가의 상품을 가지면 친구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20-30대나, 모조품이라도 사서 왕따를 면하려는 중, 고등학생에게도 고가의 상품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같다. 제품의 명성과 희소성, 높은 가격을 통해 신분적 우월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자기 만족감, 언론 매체의 조장, 사회 전반의 일류주의, 사회 변화에 의한 소비의 고급화 등이 대중들이 럭셔리 룩을 추구하는 이유일 것이다.

특히, 드라마를 즐겨보는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층이나 20대 초반 여성들이 드라마 의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소비심리를 수입 브랜드로 부추기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드라마를 TV 매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재시청함으로써 드라마 의상의 유행을 부추기며, 드라마 의상의 브랜드명까지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패션에 대해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옥션이나 공동구매 등으로 굳이 옷을 사러 다니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입 브랜드들이 대중에게 접근이 용이해 졌다.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의 열성적인 애청자들은 방송사측이 제공하는 공식 인터넷 사이트(www.imbc.com)에서 해당 수입 브랜드의 상품들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는 MBC 인터넷 전략기획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연결시켜 줬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된 시청자들은 오히려 손쉽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줘서 편리하다는 반응이다. MBC 인터넷 전략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드

라마가 방영 중일 때 배우들이 사용한 의상, 액세서리 등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옥탑방 고양이'의 경우 아예 인터넷 쇼핑몰로 연결해 시청자들이 해당 제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iMBC가 개설해 놓은 '스타상품공동구매' 코너에 가면 수입 브랜드를 시가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는 극 중 김래원이 자주 착용하는 선글라스며 시계 등을 살 수 있다.¹⁶⁾

또한 드라마 '미스터큐'(SBS·98년) '토마토'(SBS·99년) 등의 출연작에서 독특한 패션 아이템을 히트시킨 김희선은 드라마 '요조숙녀'에서 '명품족'으로 등장해 매회 화려한 패션을 선보였고, 드라마 '요조숙녀'의 홈페이지와 각종 연예 게시판에는 김희선이 선보인 옷과 액세서리 가방 등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¹⁷⁾ LG이숍(www.lgshop.com)은 드라마 '요조숙녀'의 주인공 김희선의 수입 패션을 한자리에서 판매하는 전용 숍을 오픈하기도 했는데, 드라마 속 장면을 직접 보며 해당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¹⁸⁾

이렇듯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패션은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입은 옷이나 액세서리는 곧바로 소비자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하여 그 제품의 판매 증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요즘처럼 불경기 속에서는 패션 업체들의 드라마 속 제품 광고가 홍보 전략 중 가장 강력한 도구로 쓰인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에게 특정 아이템을 협찬하는 것부터 이들을 영입에 끌어들이는 것까지 드라마 속 스타 마케팅의 강도와 형태는 다양하다.¹⁹⁾

3. 유틸리티 룩(Utility Look)

2000년대 새로운 스타일로 보보스²⁰⁾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의 실용적인 패션 스타일이 바로 유틸리티 룩이다. 2003년에는 작업복 스타일인 유틸리티 룩의 유행으로 여러 개의 바깥 주머니나 지퍼로 다소 거친 느낌을 표현한 카고(Cargo) 팬츠가 인기를 끌었지만, 올해는 장식 없이 단순한 스타일의 바지가 많이 나왔다²¹⁾. 대중적인 아이템을 바탕으로 빅

스 앤 매치시키는 유틸리티 룩은 대부분 면소재로 이뤄져 입는 사람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한 장점이 있다.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에 적절하여 특히 학생들에게 더욱 인기가 있다.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에서 정은이 패션의 기본 스타일은 카고 팬츠나 찢어진 진 팬츠에 목둘레가 깊어 파인 디자인의 헐렁한 셔츠를 코디하여 실용성과 활동성을 강조하고, 진 팬츠에 짧고 타이트한 원색 티셔츠를 조끼와 매치하거나 민소매 티셔츠를 코디하여 친숙함을 준다.

또한 드라마 '요조숙녀'에서 남자 주인공 영호는 코듀로이 재킷, 면 소재 셔츠, 치노 팬츠 등으로 편안함을 준다.<사진 17>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이 극중에 입는 옷은 수입 브랜드도 아니고 국내 중저가 브랜드로 목까지 올라오는 터틀넥 스웨터와 롱코트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었으며, 여주인공 최지우 역시 드라마 역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이므로 활동성 있는 팬츠를 자주 입는다.<사진 18> 약간 헐렁한 데님 팬츠나 정장 느낌의 블랙 팬츠를 롱코트와 함께 매치해 세련된 유틸리티 룩을 선보이고 있으며, 셔츠와 다양한 컬러의 니트를 매치시

키는 스타일을 선풍적으로 유행시켰다.<사진 2> 세드라마의 주인공들 모두 전체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 닮아있는 캐릭터로 활동적이면서 편안한 유틸리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드라마 '요조숙녀'에서 고수의 의상이 좋은 반응을 얻어 고수의 이름을 딴 이른바 '고수 브랜드'가 나온다. 고수 전속사는 '현재 전속 CF모델 계약을 맺고 있는 의류회사 '베이직 하우스'와 손잡고 '고수라인'을 만들기로 구두로 합의했다'며 '고수 브랜드의 명칭은 '고수 by 베이직 하우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수 전속사는 이어 '10대 후반~20대 초반 남성을 타겟으로 한 중고가 브랜드로 런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수 브랜드'는 일단 의류에서 시작해 가방, 구두, 액세서리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고수 브랜드의 탄생은 그가 SBS 드라마 스페셜 '요조숙녀'에서 선보이고 있는 패션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가시화됐다. 베이직 하우스 측은 이 드라마에서 영호 역을 맡은 고수를 위해 따로 특별디자인팀을 구성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²²⁾

IV. 결론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예술 사조의 흐름은 문학, 음악, 복식 등 다른 장르의 예술에도 그 경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매스 미디어와 인터넷 시대인 21C에 TV 드라마 의상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TV 드라마는 매스 미디어의 오락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장르이며, 시청자들은 있었던 사실이나 있을 법한 가상의 세계를 극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작한 TV 드라마에 몰입하게 되는데, 특히, TV 드라마는 영화보다 현실에 있을 법한 상황 설정과 시청자들과 친숙한 소재를 주제로 다루고 있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매스 미디어를 통한 드라마 의상은 작품 속에서 중요한 일부분으로 취급되어지며, 연기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분야로 드라마의 주제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연기하는 배우로 하여금 그 의상에 맞는 몸과 표정, 내면적인 연기까지 하도록 한다. 의상은 단순히 배



<사진 17> 드라마 '요조숙녀'의 주인공고수가 자주 입는 유틸리티 룩



<사진 18> 드라마 '겨울연가'의 두 주인공들의 편안해 보이는 코트와 팬츠

<표 1> 드라마별 유행 아이템 분석

드라마 유형	분류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패션 소품	기타 유행 스타일
겨울연가		셔츠+가디건	터블넥 스웨터+코트	머플러	바람머리
					
옥탑방 고양이		셔링 셔츠	민소매 티셔츠	크로스 백	트레이닝 룩
					
요조숙녀		트위드 재킷	플라워 패턴 셔츠	가방	유틸리티 룩
					

우가 입고 등장하여 배우의 몸을 가리는 도구적 역할과 일상적인 의복의 기능 외에도 표현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상들은 대중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특히,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는 사람들의 복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드라마의 흥행 정도에 따라 더 많은 유행을 만들어 내며 사람들은 앞으로도 드라마 등의 매체가 보여주는 의상, 스타가 입고 나오는 의상 등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패션 스타일에 반영된 TV 드라마

의 영향을 패션 룩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첫째, 럭셔리 룩(Luxury Look)은 대부분의 드라마 주인공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룩으로써 과시욕이 증가하는 최근의 경향을 수입 브랜드와 화려한 액세서리로 표현하고 있다.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에 김래원은 수입 브랜드를 지향하는 대학생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일을 연출함으로써 새로운 패션리더의 모습을 제시했으며, 신분상승을 원하는 주인공의 열망을 표현하기 위한 소품으로써 화려하고 고가제품의 의상을 선보이는데, 드라마 '요조숙녀'의

김희선은 재벌2세와의 사랑을 꿈꾸는 그녀의 패션 키워드로 럭셔리 룩을 착용했다. 때로 드라마에서 럭셔리 룩은 부를 과시하는 것으로 과장되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드라마 '요조숙녀'에서 손창민은 하얀 재킷에 꽃무늬 패턴 셔츠로 한껏 멋 부린 이미지를 연출한다. 둘째, 라이프스타일이 바뀐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스포티브 룩(Sportive Look)도 드라마에서 자주 보여지는데, 특히, 젊은이들에게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의 주인공 김래원과 정다빈이 트레이닝복을 드라마 전편에 걸쳐서 입고 나와 2003년 대유행을 거두었다.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양 옆에 세로 줄무늬가 있는 트레이닝 팬츠가 있다(사진 16). 2000년대 트레이닝복은 단순히 트레이닝의 이미지가 아닌 패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셋째, 편안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의 유틸리티 룩(Utility Look)은 드라마 '겨울연가'의 두 남녀 주인공의 활동적인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팬츠와 코트 등의 아이템으로 배용준과 최지우가 즐겨 입었으며, 드라마 '요조숙녀'에서는 호수에 유학을 가서 학생 신분으로 고수가 즐겨 입었던 룩이다. 또한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의 정다빈도 카고 팬츠와 셔링 장식의 면 티셔츠로 실용적인 유틸리티 룩을 보여준다.

한 시대에 나타난 복식 요구는 예술 미학적 측면, 사회 경제적 측면, 시대 정치적 상황, 심리적 측면 등 여러 다각도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될 수 있으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논리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드라마 의상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이고, 드라마 의상을 통해 패션 트렌드의 예측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업적이고, 단순한 스타 마케팅이 아닌 전문적인 연구를 통한 드라마 의상의 제작과 선택이 요구되어지며, 드라마 의상에 대한 패션 관계자들의 좀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채금석 (2002). 현대복식미학(개정판). 서울: 경춘사, p. 3.
- 2) 전 세계 최대규모,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미디어조사의 닐슨미디어리서치는 국내에서도 92년부터 축적된 가장 기간의 자료 보유와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국내 최대의 전국 패널인 1,550가구를 구축, 공중파는 물론 케이블, 위성 등에 대한 피플미터(Peoplemeter)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쇄매체의 열독률 조사, TV시청률과 인쇄매체 열독률, 광고량 자료가 통합된 광고효과 통합분석 시스템인 Ad-lib, 고객사 요청에 맞게 설계, 시행되는 미디어전문 맞춤형조사 등 닐슨미디어리서치는 국내 주요 광고 대행사와 방송사, KOBACO 를 비롯, 미디어관련 기업 및 기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닐슨미디어리서치, 자료검색일 2005. 4. 23. 자료출처: <http://www.acnielsenmedia.com>
- 3) Naver, 자료검색일 2004. 6. 5.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4) 국민일보 (2002. 2. 23). '겨울연가' 등장 폴라리스 목걸이가 인기선물로 부상.
- 5) 경향신문 (2003. 7. 22). 'MBC TV '옥탑방고양이' 될 날졌다'.
- 6) 앞머리를 내려 눈썹 위에서 일자로 자른 헤어스타일을 말한다. 예로는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의 하지원의 헤어스타일이다.
- 7) 스포츠 투데이 (2003. 9. 9). '이번엔 왕관 귀걸이'.
- 8) 한국일보 (2003. 9. 4). [워크진프리] '누구나'를 벗고 '나'를 입는다.
- 9) 큰 포켓이나 흰색 스티치 워크(stitch work), 스트레이트 룩을 특징으로 하는 목수나 페인공 등의 작업복 형태의 진즈를 가리킨다. 유틸리티는 '유용한, 실용적인, 실용본위의'의 의미로 여분의 장식을 배제한 실용적인 디자인을 말한다.
- 10) 미국의 프리패러토리 스쿨(preparatory school: 하버드, 예일 등 미국 동부 아이비 리그의 명문대학 진학을 예비하는 사립고교)의 학생들인 프레파들이 즐겨입는 심플하고 클래식한 복장 스타일이다. 여러 종류의 단 품들을 사용한 코디네이트로 어원은 대학진학 전의 학생이지만 대학생과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플로 셔츠, 페어 아일 스웨터, 킷트 스커트, 마드리스 체크 재킷, 스커트 팬츠, 시어셔커 재킷 등이 주용 아이템이다. 1980년 우먼스 웨어 데일리 지에 '뉴 아비비 룩'으로 크게 소개된 바 있다.
- 11) 일간스포츠 (2003. 9. 28). '아스타가' 걸치면 나도 스타.
- 12) 한국경제신문 (2003. 7. 13). '옥탑방 패션' 패션몰 강다. 민소매티, 카고 팬츠 등 드라마 속 의상 불티.
- 13) 경향신문 (2003. 7. 10). '츄리닝'누가 촌티난다고 했나!
- 14) 문화일보 (2004. 2. 26). <이형진의 스포츠 해킹>유니폼 논란과 '나이키의 전략'.
- 15) 한국경제신문 (2002. 6. 17). '아이디스 룩' 패션가 열풍.. '츄리닝' 띄쳐나온 3선 줄무늬.
- 16) 스포츠투데이 (2003. 7. 17).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

명품 전시장.

- 17) 스포츠 투데이 (2003. 9. 16). [시청률X파일] '요조숙녀' 인기 바람났네.
- 18) 매일경제 (2003. 8. 25). LG이숍, 드라마 속 상품 판매.
- 19) 동아일보 (2003. 8. 28). 스타가 입은 브랜드, 나도 입을래.
- 20) 부르주아(bourgeois)의 물질적 실리와 보헤미안(Bohemian)의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누리는 미국의 새로운 상류 계급을 가리키는 용어로,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의 합성어이다. '보보'라고도 한다.
- 21) 한겨레신문 (2004. 5. 20). 올 여름 바지 하나로 멋내기.
- 22) 스포츠 투데이 (2003. 9. 7). '고수' 이름 달고 옷·가방 나온다.
- 23) KBS TV 드라마 '겨울연가', 자료검색일: 2004. 12. 31, 자료출처: <http://drama.kbs.co.kr/winter>
- 24) SBS TV 드라마 '요조숙녀', 자료검색일: 2004. 10. 13, 자료출처 http://tv.sbs.co.kr/yojo/yojo_main.html
- 25) MBC TV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 자료검색일: 2004. 10. 14, 자료출처 <http://www.imbc.com/broad/tv/drama/cat/index.html>